

Obsesstopia, 강박이 구축한 하나의 세계 김리아갤러리, 박태훈 개인전 <Obsesstopia> 개최

- 강박과 반복을 기반으로 형성된 회화적 질서
- 인간·세계·인식에 대한 탐구를 담은 신작 공개
- 이미지 생성 기술과 회화의 관계에 대한 실험



박태훈 개인전 'Obsesstopia' 전시 알림 포스터

김리아갤러리는 2026년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박태훈 개인전 《Obsesstopia》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강박적 태도와 접근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 그리고 인식의 문제를 회화로 풀어낸 신작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Obsesstopia》는 'Obsession(강박)'과 '-topia(관념적 공간)'를 결합한 개념으로, 작가가 구축해온 내적 세계를 지칭한다. 박태훈은 반복적으로 형상과 색을 화면에 채워 넣는 방식에서 출발해, 이러한 강박적 태도가 개인의 성향을 넘어 환경과 경험 속에서 형성된 구조와 맞닿아 있음을 탐구해 왔다. 'Parktaeria'를 비롯한 일련의 작업에서 레이어의 중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와 변형은 화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하며, 이는 특정 시리즈에 한정되지 않고 작가의 회화 전반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자리한다. 화면 위에 쌓이고 충돌하는 요소들은 서로 간의 차이를 드러내며,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각적 효과는 작가 자신과 그를 둘러싼 세계를 반영한다.

작가는 인간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로 바라본다. 더 많은 것을 향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은 작업의 출발점이 되며, 이러한 상태는 반복이라는 태도로 지속된다. 이는 목적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박태훈은 세계를 관계와 배열 속에서 이해하려 한다. 그의 회화는 여러 겹의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각 요소가 부딪히고 간섭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형태와 색은 일정한 규칙처럼 작동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복합적인 화면이 형성된다. 이는 과학이 수식을 통해 세계를 설명하듯, 회화 역시 고유한 방식으로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한 작업도 함께 소개된다. 작가는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회화로 옮기며, 재현의 어긋남에서 발생하는 감각을 통해 회화가 인식과 상상의 사이에서 작동하는 매체임을 드러낸다.

박태훈의 회화는 설정된 구조 안에서 반복과 축적을 통해 질서를 형성하고, 그 귀결은 하나의 세계로 확장된다. 《Obsesstopia》는 이 응축된 과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며, 관람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복합적인 세계를 마주하도록 이끈다.

주최: 김리아갤러리

위치: 김리아갤러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청담동 100-31)

KIMREEAA GALLERY | Gangnam-gu Apgujeong-ro 75gil 5, Seoul, Korea

INSTAGRAM: 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

WEB: www.kimreeaa.com



박태훈은 정지된 듯 보이는 화면을 반복해 응시하는 과정 속에서도 새로운 인상이 생성되는 지점을 탐구한다. 그는 화면을 분할하고 여러 층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단일한 시점이나 고정된 질서에 기반하지 않는 감각의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작가는 끊임없이 증식하고 확장하는 유토피아적 공간 'Parktaeria'를 제안한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이미지의 재현을 넘어, 세계를 다층적으로 관찰하고 다시 조직하는 하나의 탐구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의 회화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층'이다. 서로 다른 풍경과 시점, 시간대가 한 화면 안에 병치되고 중첩되며, 각 층은 충돌하면서도 전체 화면의 질서 속에서 정교하게 조율된다. 이러한 방식은 복합적인 현실을 회화적 구조로 전환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형광색을 포함한 대담한 색채는 자연의 이미지를 비현실적으로 변주하며, 관람객이 익숙한 풍경을 낯선 감각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도록 이끈다.

Park Taehoon explores painterly methods that generate new impressions even within the repeated act of viewing a seemingly static image. Through a structural approach of building up layers and dividing the canvas, he constructs the world of "Parktaeria," a utopian space conceived by the artist that is premised not on a single viewpoint or fixed order, but on a sensory system that continuously proliferates and expands. His practice moves beyond the mere representation of images, functioning instead as a mode of inquiry that observes and reconstructs the world through multiple strata.

A central element in his work is the "layer," a device that juxtaposes and overlays different landscapes, perspectives, and temporalities within a single surface. Each layer collides yet is carefully orchestrated within an overarching structure, transforming the complexity of reality into a painterly order. His bold use of color, including fluorescent hues, renders natural imagery unreal, prompting viewers to perceive familiar landscapes through an unfamiliar sensory lens.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수많은 현상과 감각이 동시에 발생하고 교차하는 다층적 공간이다. 박태훈은 이를 혼란으로 제시하기보다, 충돌과 중첩을 조형적 구조 안에서 조직함으로써 또 다른 조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의 화면은 세계를 단순히 묘사하는 장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자율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회화적 실험의 장이 된다.

1993년생인 박태훈은 중앙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Kiaf & Incheon Airport Exhibition》 개인 부스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The reality we inhabit is a multilayered space in which countless phenomena and sensations occur and intersect simultaneously. Rather than presenting this world as chaos, Park Taehoon organizes collision and overlap into a formal structure, seeking new possibilities of harmony. His canvases do not simply represent the world; they operate as sites of painterly experimentation that construct another autonomous ecosystem.

Born in 1993, Park Taehoon graduated in Western Painting from Chung-Ang University. He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numerous exhibitions and gained recognition after receiving the Grand Prize for his solo booth presentation at the *Kiaf & Incheon Airport Exhibition* hel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ark Taehoon
obsesstopia-supercomplex (untitled) (2026)

acrylic on canvas
181.8 × 227.3cm



Park Taehoon
obsesstopoia (2026)

acrylic on canvas
193.9 × 130.3.cm



Park Taehoon
obsesstopia (untitled) (2025)

acrylic on canvas
130 × 130cm



Park Taehoon
obsesstopia (untitled) (2026)

acrylic on canvas
97 × 145.5cm



Park Taehoon
obsesstopia (untitled) (2025)

acrylic on canvas
116.8 × 91cm



Park Taehoon
obsesstopia (untitled) (2025)

acrylic on canvas
116.8 × 91cm